

제 5 차 서태평양 정형외과 삿포로 속학회 참관기

“A delegates impressions of the Post W.P.O.A. Congress-Sapporo”

by Prof. Dr. Myung Sang Moon

가톨릭 의과대학

文 命 相

우리 나라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개최된 제 5 차 서태평양 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를 무사히 끝마치고 일체의 사무를 저버린채 허둥지둥 10월 4일 오전 10시 김포를 떠나 일본 열도의 북단에 위치한 북해도 삿포로시를 향했던 것이다. 출발 준비를 하느라고 이른 아침부터 온 식구의 단잠을 깨운 것은 물론 의국원들까지도 나의 일을 봐 주느라고 몹시 수고하였다. 서울을 떠날 때는 제 5 차 대회장이며 전 학회장이던 주 정빈 박사, 국립의료원의 김 기용 박사, 멀리 서독의 Hamburg에서 온 나의 친구 Zander 박사 등과 함께 KE-703기에 탑승하였었다. 그러나 동경에서는 북해도로 떠나는 비행기의 출발 시간과 소속 회사가 서로 달라 네 사람 모두 따로 떠나야만 했었다. 즉 나는 전일본 항공기를 이용하여 14시 15분에 겨우 동경에서 북해도로 향했으며, 다른 분 역시 따로 JAL 기를 이용했으나 따로 떠났던터라 Hotel에의 도착 시간도 제각기 달랐다. 삿포로(札幌) 시내의 후생 연금회관에 도착한 것은 저녁 5시 반경이었으므로 김포를 떠난 지 8시간 후라고 생각된다.

Hotel의 Lobby에 도착하고 보니 나보다 하루 먼저 도착한 이 덕용 교수와 삿포로 의대의 平山 조교수가 외지 여행에 서툰 나를 반가이 마중하여 주어 큰 위안이 되었다. 대회 참석 등록은 이미 하고 왔으나 접수처에 우선 등록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전야제 시간이 임박하였으므로 급히 Counter에서 실 방을 할당 받은 후 짐을 풀었다. 그리고 바로 Lobby로 나와 平山 조교수의 안내를 받으며 이 교수와 함께 전야제 회장인 Elm Sanso(山莊)으로 향하였다.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우리 나라에서 한 것처럼 대회에 참석하는 회원 전원이 초대된 것으로 알았으나 막상 가 보니 극

히 제한된 인원만이 초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곳에서 天兒, 片山, 栢木, 土屋 등 일본의 여러 원로 회원과 기타 외국의 극소수의 피초청회원과 함께 환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기억에 새롭다. 삿포로의 첫 밤은 몹시 기억에 남는다. 일본을 여러 차례 여행하였으나 그곳은 아직 일본서도 오지로 불리는 곳이라 여러 가지 기대를 안고 찾았던 곳이다. 북해도는 우리 나라만한 크기라고 하는데 인구는 약 550만 정도라고 하니 짐작이 잘 것이다. 서울의 복잡한 거리에 비해 조용하며 잘 정돈되고 아름다와 마치 구라파에 간 느낌이 들었다.

삿포로의 첫 날 밤은 여행의 피로와 밤 늦게까지 환담하느라고 지새워 순간간에 지나 버린 느낌이 든다. 그러나 개회식에 빠지지 않으려고 5일 아침에도 서울에서와 같이 6시에 일어나 Schedule을 확인하고 7시에 Lobby로 내려 가서 등록제를 찾았다. 그러나 8시에야 접수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거리를 산책한 후 8층 식당으로 돌아와 일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였다. 식당에서, 서울에 왔던 외국의 여러 동료 회원들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던 기억이 또한 새롭다. 이들 중에는 호주의 Maxwell 선생 부부와 Dr. Spitze 부부, 대만의 Chen 교수와 그 일행, 말레이시아의 Dr. Silva 내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식당에서 전남의대의 김 형순 교수와 김 장원 선생을 만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 두 분은 5일 아침에 동경을 떠나 삿포로에 왔다고 한다. 이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온 참가 회원 수는 6명인 셈이다. 원래 참가를 희망한 12명 중 반이 참가한 것이다. 아침 식사는 6백원의 간단한 일본식 식사였으나, 구수하였고 다른 곳에 비해 질과 양도 좋은 편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

하면 이 곳을 회의장으로 택한 가와무라(河村) 교수 일행의 세심한 대회 준비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8시 30분에 접수제를 찾아 등록을 확인하고 program을 받고 일단 침실에 가서 약 10분간 쉬다가 아침 9시에 시작되는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개회식은 약 3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A강당에서 열렸으며 서태평양 정형외과학회의 일본국 대표인 동경대학의 津山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1978년 경도에서 개최될 예정인 SICOT의 제14대 회장이며 제50차 SICOT 대회장인 九州労災病院長 九州대학의 명예교수인 아마고(天兒) 선생의 축사가 있었다. 끝으로 postcongress의 대회장인 삿포로 의대의 가와무라 교수의 개회 선언으로 막이 열렸던 것이다.

이 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약 150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약 40명이 외국인으로 생각된다. 물론 부부를 합치면 약 70명 가량이 참가한 셈이다.

회의장은 같은 층에 세 곳이 마련되었으며 별도로 한 방은 무료 봉사의 coffee lounge이며 동시에 토론장으로 개방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도 앞날에는 회의장만은 좀 여유있는 곳에서 열었으면 한다. 세 개의 소회의실도 각각 15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대회장(A Hall)에서 월세없이 free paper와 round table 및 symposium이 개최되었고 B 소강당에서는 round table conference가 열림으로써 양일간에 두 개의 symposium과 6개의 round table conference가 열렸다. C소강당에서는 첫날인 5일 오전과 오후에 5개의 film이 상영되었으나 오후에는 오전 것을 되풀이 상영한 것이었고 셋은 우리 나라에서 상영된 것이었다. 河村 교수의 '비구골반 절골술'에 대한 영화와 히로시마(廣島)대학의 이구다 선생의 소혈관 봉합술에 의한 '유리근 이식술'이란 영화는 새로운 것이었으나 특히 河村 선생의 것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1974년도 일본 정형외과 연차 학술회에서 상영된 것으로 기억된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수는 모두 60연제이며 film 수는 5편이었다. 이 중 free paper 수는 20연제이고 2개의 Symposium에서 발표된 논문 수와 6개의 round table conference에서 발표된 논문 수는 각각 13편 및 27편이었다. 우선 20편의 free paper에 관해 소개해 보기로 한다. 이들은 다시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첫 모임의 좌장은 국립대만대학 Chen(陳漢廷) 교수였으며 4연제가 발표되었으나 서로 연관이 없는 연제라서 symposium이나 round table에 포함될 수 없던 연제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첫 연제는 영국의 Manchester에서 온 Shaw 선생의 '술관절전치환

술'에 관한 것이었으나 별로 새로운 시도는 아닌듯 하였고 아사히가와 의대의 다게미즈 선생의 trephine에 의한 '척추체 생검술'에 관한 보고는 필자 역시 Turkel 씨 침을 쓰고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웠고 좋은, 간편한 진단법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라 믿어진다. 이 첫 모임 동안에 우리 나라의 유일한 발표자였던 이 덕용 교수의 '마비 고관절의 재건술'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원래는 '소아기 화농성 고관절염'의 후유증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의 '고관절 전치환술'에 관한 임상예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WPOA-Seoul 대회에서 발표하였으므로 서울에서 구연하지 않았던 연제를 여기에서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마비 고관절의 재건술에 관한 보고가 드문 이 때 이렇게 많은 경험예가 보고된 것은 참가자들에게 아주 유익하였을 것이다.

대만의 Dr. Yu의 '특발성근구축'에 관한 보고 역시 서울에서 발표된 것이었으므로 각 session에서 새로운 것으로 느껴지며 흥미를 끈 것만을 한 개씩 골라 간단히 설명을 해 보기로 하겠다.

일본의 어디를 가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절단수지의 재접합술이었고 이 대회에서도 매성황을 이루었으며 한국에서도 발표된 것이 여기서도 발표되었으나 일본내에서 가장 권위자로 알려진 Dr. Tamai와 Tasima 선생 등의 풍부한 경험은 놀라울 정도였다. 이런 발전은 그들의 대단한 열성을 뜻하며 일본에서 제작되어 쉽게 공급되는 수술용 현미경의 덕분으로 보여지며 우리들도 하루 빨리 이런 날이 닥아오기를 바랄 뿐이다.

술관절손상에 관한 round table에서 주목을 끈 것은 九州노재병원의 Torisu(鳥巢) 선생의 "posterior cruciate의 경골부착부 척골절"의 치료에 관한 것이었으며 조리있게 이론 전개가 되어있고 손상의 기전과 진단 및 수술의 적응등은 새로운 것이었다. 그는 이 척골절은 staple 고정으로 잘 치료된 수 있다고 하였고 31예 중 후방 십자인대의 단독파열은 3예 뿐이었다. 나의 친구인 독일의 Zander 선생 것은 역시 서울에서 발표된 것이었고 자기의 경험예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데 불과하였다.

골수염에 관한 symposium은 주 정빈 선생이 좌장을 맡으셨고 우리들이 흔히 경험하는 예들이라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나 慈惠會(Jikeikai) 醫大의 Dr. Omori(大森)의 Bone scan을 통한 골수염의 치료 경과 관찰은 흥미로웠으며 이것은 주임교수이며 제50차 일본 정형외과학회장이신 伊丹康人 教授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업적의 하나이며 만성골수염 수술 후 단순 X선과 열침 등으로 치료 경과를 파악키 곤란할 때 이 방법의 임

상도입은 큰 의의가 있다고 느껴졌다. 즉 大森 등은 ^{85}Sr , ^{87}Sr 또는 $^{99\text{m}}\text{Tc}$ STTP 등을 사용하여 scinti-scanning 을 하여 이것과 종래의 X선과 血沈을 비교 검토한 결과 RI에 의한 scanning 이 초기진단에 또한 병세 혹은 치유 판정에 극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외의 연제는 별반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서울서 발표된 만성골수염치료를 위한 omental graft 는 Sapporo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새로운 것이었다.

선천성股關節탈구(C.D.H.)를 주제로 한 round table 은 양일간 2회 열렸으며 그 원인은 연제 수가 많은 탓이며 여기에서 가장 흥미를 끈 것은 6일 오후 B-Hall에서 발표된 6연제 중 東京大의 津山(Tsuyama) 교수의 "Nothing to do" policy of treatment for C.D.H.였다. 완전탈구를 일으켰던 대퇴골두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함에 따라 재위치에 자연정복됨으로서 수술에 의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꿈같은 얘기를 slide 를 통해 제시하여 참가자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류마치스관절염에 관한 round table 은 6연제로 구성되었으며 九州労災병원의 鳥巢 선생이 발표한 hydrocortisone 의 관절내 주입에 의한 류마치스 슬관절의 파괴상은 아는 사실이지만은 우리 나라에서처럼 steroid 가 남용되고 있는 나라의 의사에게는 아주 instructive 한 것으로 생각된다. 6일 아침에 있는 첫 free paper session 은 横濱市立의대의 土屋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3연제만이 발표되었으며 鳥根縣 中央병원의 Tominaga 선생의 급성척수손상의 치료에 있어 수술시기와 indication 이 주목을 끌었으며 그는 interlocking 이 일어나 정복이 곤란한 전방굴절탈구와 bursting fracture 와 같은 척추의 배열장애가 있는 경우는 손상 3시간 이내에 관혈적 정복 후 전방주체간고정술을 해야 하고 반대로 정복이 쉬운 탈구와 추간판 손상에는 손상 후 3주 이내에만 수술을 하게 되면 결과가 좋다고 하였다.

10시에 있는 두 번째 free paper session 은 京都大의 伊藤 교수가 사회를 맡었으나 별로 새로운 것은 없었으나 多島 교수가 맡은 좌장중 3번째의 session에서는 microsurgical technic를 이용한 free muscle transplantation 은 흥미로웠으며 micro surgery 가 다방면에 응용되고 있음을 보고 우리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까웠다.

千葉醫大의 井上 교수가 전기적골성유도법을 응용한 골절치료법은 주목을 끌었으며 그는 좋은 치료성적을

얻었다고 하였으며 이미 기초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을 다만 임상에서 응용하여 얻은 성적이라 믿어진다. 배양되고 있는 골모세포배지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음극(cathode)에 골모세포가 모이게 된다는 이론이며 또한 골절부가 압력(compression)을 받은 곳은 극전류현상(piezoelectricity)에서는 음극이 되고 tension 을 받은 곳은 양극이 생기는데 음극쪽에 골모세포가 모이며 이로 인하여 골생성이 잘 된다는 이론을 역이용한 치료법으로 생각되나 비유합부에 골모세포가 없더라도 전류가 골모세포생성을 촉진하는 것인지 아직 의문이다.

두 번째 symposium 인 Swtiosis 는 北海道大學의 松野 교수가 moderator 하였으며 여기서는 Hong-kong 의 Yau 교수를 비롯하여 6연자가 참가하였으나 Yau 교수의 독무대였으며 그의 심한 측만 증세에 대한 multidisciplinary approach 는 역시 매우 instructive 하였고 일본인들도 우리보다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대부분의 큰 병원에서는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특히 지체부자유치료 center 의 高橋 선생의 안내로 그의 병원을 찾았을 때 curved spine 을 수직으로 tomography 할 수 있는 일제 Toshiba X선 기계를 보고는 또 한번 놀랐다. 그들 중에는 설사 맞지 않더라도 시설이 완벽한 것을 보고는 작은 시골 재활원의 시설일지라도 시설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시설보다 잘 갖추어진 것 같아 부러울 뿐이었고 松野 선생과 千葉大의 Inoue 선생은 이 분야의 日本의 대가라고 들었다. 그러나 Yau 교수의 강연이외의 것은 인기를 끌지 못한 것 같다. 이와같이 발표 연제수로나 참가수에서나 한국에서 열린 본 회의에 비하면 약 1/5 정도 크기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으나 하였던 참가자들은 대단히 열성적이었고 河村 교수와 전의국원들의 세심한 준비계획에 놀랐음을 밝혀둔다.

5일 필자는 이 덕용 교수, 김 기용 선생, Yau 교수 등과 함께 서울중학을 졸업했다는 檀海道立坐骨股體不自由兒總合療育 centre 의 高橋 원장의 안내를 받아 그의 병원을 전학했으며 시골병원이지만은 시설만은 완벽함을 보고 놀랐다. Prof. Yau 역시 scoliosis의 대가지만은 이 기계를 보고 놀라는 듯하였다.

방문 후 高橋 박사는 우리 일행을 위해 golf 장의 club에서 점심을 샀으며 그후 나와 김 기용 선생 이외의 사람들은 golf 를 즐겼다. 7일에는 北海道大學 농학부의 金 奉柱 교수의 안내를 받아 김 기용 선생과 함께 北海道大學의 정형외과를 방문했으며 그곳에서 Zander 선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서로 헤어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 분은 나의 둘도 없는 친구이며

나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까닭이었다. 松野 교수는 처음 만나 보았으나 친밀감을 보여 주었으며 high tibial osteotomy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松野 교수의 전공인 club foot에 대한 triple fusion하는 것을 몸소 설명하면서 보여 주었고 오후에는 石井 선생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안내케 하였으며 北海道의 百年 기념탑까지 안내했고 저녁식사도 초대하였으나 金 奉柱 선생의 안내로 開成病院의 田中 선생을 소개받았으며 그분은 우리들을 성실히 접대하여 주었다. 이 두 큰 병원의 방문이 북해도에서 구경한 병원의 전부였으나 큰 수확이었다.

순서가 뒤바뀌는 느낌이 드나 5일과 6일밤의 장면을 소개해 볼까한다.

전야제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수의 인사만이 초청되었으나 6일의 삿포로의 맥주공장에서 경영하는 Bier gurter에서 전 참석자를 위한 Buffet style의 식사를 들며 마음껏 즐겼다. 그곳에서 함께 자리를 한 인사 중에는 Chen, Yau, Lam 등 나의 동료들이었으며 약사들의 노래에 장단 맞추어 자국의 민요를 들은 것도 또한 흥을 돋우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맥주 공장을 관광자원으로 이용 관광객에게 평소 공개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 한국인 일동은 아리랑을 합창하였고 이 덕용 교수를 비롯 여럿이 춤을 추며 흥겨워했다. 河村 교수가 보내준 사진을 바라보면 그때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6일밤의 초대원은 Park Hotel에서 있었고 역시 전 참가회원이 참석했으며 이별을 앞둔 회원끼리 그간의 회포를 푸는 좋은 모임이었다. 그야말로 성대하게 열렸으며 삿포로 시장을 비롯 많은 거물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津山 교수의 소개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河村 교수는 北海道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시인이란다. 北海道에서 수년전 열린 세계 동계 Olympic의 노래는 그가 작사한 것이란다. 이 동계올림픽의 노래가 울리는 가운데 연회가 시작되었으며 이어 우리의 가야금 비슷한 일본의 고유악기가 일본 문화재라 불리는 女流인사와 그의 딸에 의해 연주되었다. 그들의 기교란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이곳에서 함께 자리를 같이한 이는 關西大의 森 교수와 Hong-Kong의 Dr. Leong과 그들의 group이었다. 이 Hotel의 정원 설계를

가 金 奉柱 교수의 작품이라고 소개받았다.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다. 造園設計에 백지인 나에게도 큰 감명을 준 일급작품이었다.

이 연회를 끝으로 우리는 서로 헤어지기 시작했으며 일부 인사는 그냥 Sapporo 시내에 남고 대부분의 인사들은 group tour에 참가하였다. 주 박사와 이덕용 교수 등은 group tour에 참가했으나 나와 김 기용 선생은 北大의 金교수의 신세를 졌으며 그 분 덕분에 가까운 명승 고적을 두루 다 보았다. 특히 Toma Koma(苦小牧市)의 집까지 초대하였고 Sapporo의 영사관에도 우리 일행을 안내해 주었으며 그의 애국심은 대단하였다. 쇼와신전, 시고쥬호반, 다르마에산과 노보리 배추통을 거쳐 도야 호반의 절경 등을 구경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절한 안내 덕분이었다.

7일에는 명치 11년에 지어졌다는 정으로 약 100년이 되었다는 北의 前身인 농학교의 구조물과 연무장의 시제탑을 구경했고 농학교의 건물 높이도 약 20m 정도이고 시제 문자판 크기는 약 2m라고 한다. 또한 우리들은 明治 40년 즉 약 70년전 농학부의 학생들이 실습 때 심었다는 포푸라 길도 구경하였다. 여기에서 암수를 가리는 법도 배웠다.

김 기용 선생과 나는 10일 金박사의 전송을 받으며 Chitose 공항을 13:30 PM에 출발 동경으로 향하였다. 羽田공항에서는 이 수영 선생이 마중하여 주어 편히 시내에 닿았으며 그분 댁에서 저녁 대접을 받고는 숙소인 帝國 Hotel로 돌아왔다.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여서 11~13일 아침 일찍부터 東大의 津山 교수의 신세를 졌으며 그의 방에서 Dr. Inocentes와 Dr. Silva를 만나 함께 지냈으며 불청객의 내방을 받고도 잘 마중해 준 津山 교수에 재삼 감사를 드린다.

일본은 갈 때마다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고 감회가 다르니 여태껏 새 역사 창조의 역군이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금 굳은 각오로 매진하리라.

이 기회에 외국학회에 참석하게 되는 여러 회원들에게 귀국 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산 지식이 될 좋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가 학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합시다.